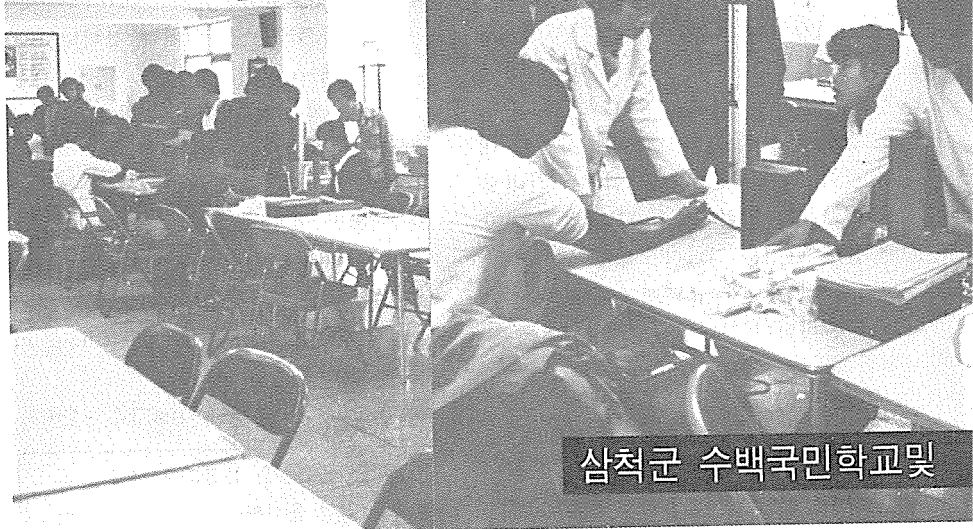


심 전 도 검 진



삼척군 수백국민학교및

가을의 단풍이 무르익은 11월 6일 기자는 도심의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동안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국토를 바라보면서 강원도 삼척으로 “검사현장을 가다”를 취재하러 달렸다.

확트인 영동고속도로와 웅장한 산악을 바라보면서, 기자는 여유 있는 마음의 여정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 * *

검사현장에 도착한 것이 저녁 9시경. 이미 현지에서 검진활동을 하고 있는 안석록 검사 소장, 이균익사업주임, 김연태기사등 검진팀이 기사를 반겨준다.

강원지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남춘천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20,750 여명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13개·지부 중 가장 심전도검사를 활발하게 하는 지부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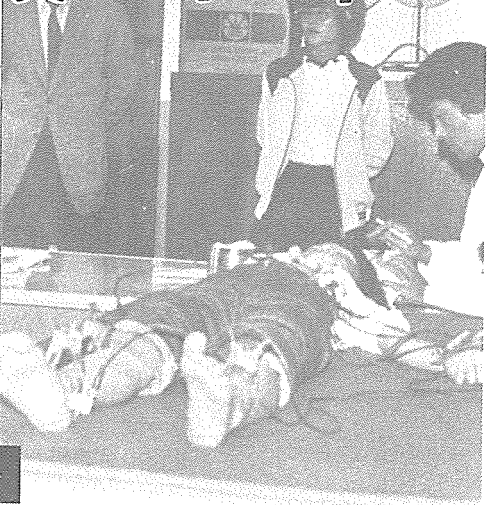
강원지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년초부터 심전도사업계획을 세웠었다. 맨처음 강원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각급 학교의 관계자와 일정명 홍보방법등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했다.

두번째로 각급학교에 사업계획서및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심장병 조기 발견의 중요성, 조기치료의 필요성, 심장병의 환자범위등 다양한 홍보계몽을 현지 출장 및 매스미디어 활용으로 독려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 행정 관서와의 긴밀한 유대 강화를 꾀하며, 유선조건에 대해서는 1차로 유선통보하고, 수검후 수검자의 요망사항과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로서 체크하는 등 일사불란한 체계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이룩해 나아갔다.

『또한 새벽 5시에 출발하여 저녁10시에 도

현장을 찾아서



동양시멘트 심전도 집단검사

착, 지리적인 여건으로 몇일 밤을 지새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적은 인력으로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강원지부 직원들은 대(大)를 위해서 고통을 참고, 건디는 협동심을 발휘하여, 출장시 검사에 임하는 현지 수검자들에게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현대식장비와 친절한 상담으로 검사업무에 임했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신뢰도를 높이는 검사를 하여 검사후 과파되는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안석록검사소장은 말한다.

* * *

기자가 현지 검진팀과 도착한 곳은 세계에서 열번째로 많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강원도 삼척군 사적리 114번지에 위치한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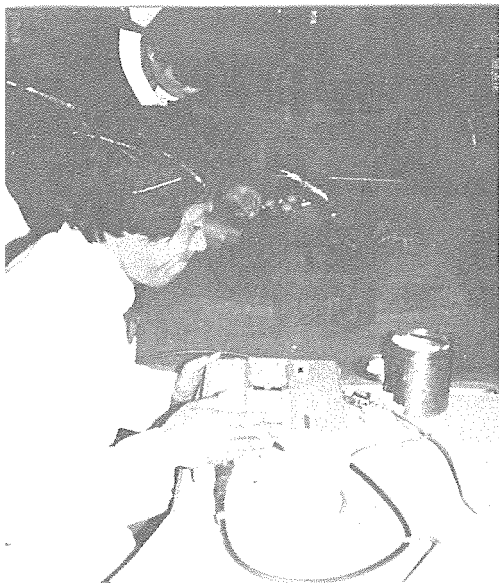
총직원 1400여명과 건평 13,000평에 달하는 넓은 공장으로 시멘트생산 공장으로는 가루가 날지 않는 깨끗한 공장의 인상을 풍

기는 곳이었다

구내방송을 통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지부에서 날로 늘어나는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종합검사를 구내식당에서 09시부터 실시하오니 검사를 신청하신 분이나...』

방송을 끝낸 관리부직원은 각부실에서 물어오는 구내전화에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관리부 李正煥차장은 『이곳에는 자체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만, 이곳 직원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면 약국에서 간단한 약을 먹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번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자신도 몰랐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알선 해 준다는 것과 이곳에 직접와서 검사를 실시해준다는 건강관리협



회의 검사 통보를 받고는 직원들이 여간 반가워 하지 않더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사회복지제도가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보험수준의 검사수가는 국민에게 배풀어지는 의료복지 혜택이지요』

제 1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기씨는 검사를 신청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털어 놓았다.

『저는 술하고는 친척같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안마시면 이상해요. 현대 몇달 전부터 설사가 자주나고, 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며, 어지럽고,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겠지 하고 약국에서 지어주는 약을 몇번 먹었습니다. 현대 요즘에도 이런 증상이 계속되어 이번 검사반에게 간염검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뇨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등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기에 이번 기회에 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 완전하게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했지요.』

또한 제 1 공장에서 일하는 권병현씨의 부

◀심장병, 비만증, 당뇨병등 현대문화병이라고 일컫는 성인병은 어린학생때 부터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를 록 해야 한다.

인 정영숙씨는 검사 후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바깥어른이 어제 집에서 말해주셨어요. 수료도 비싼편은 아니고, 또 이 먼데까지 와서 검사도 해준다가에 우리집 꼬마에 같이 가족이 나왔어요, 전종목을 검사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결혼 후 자궁암검사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궁암검사도 실시 한다기에 받아보려고요, 전에 건강관리협회에서 만든 안내문을 보니 여자는 1년에 한번은 꼭 자궁암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본적도 있고요, 그리고 친절한 검사진과 권위있는 의사님들이 판독 해준다가에 왔읍니다. 검사 결과가 10여일정도 걸린다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 * *

잠시 후, 검사진은 강원도 태백시 횡성에 소재한 수백국민학교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숲속에 자그마한 학교건물, 재학생 180여명으로 대도시의 국민학교와 비교하면, 자그마한 분교를 금방 생각할 수 있다.

손은주 교장선생님은 이번에 학생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심전도 검사사업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의 심전도 검사에 대해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모든 학생들의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강하려면 이러한 건강 검사에 대한 중요성과 기본적인 지식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지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심전도 검사후 이상자의 사후관리대책으로 심장병 재단등에 알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창밖에선 어린 학생들의 밝고 깨끗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 웃음소리가 울음소리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정녕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여름에 심장병수술을 받은 2학년 김형석군은 『수술을 마치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것이 매우 좋아요. 또 엄마, 아빠의 등에 업혀서 등·하교하지 않고 혼자 올 수 있어서 더욱 더 좋고요.』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뛰어갔다. 김형석군의 뒹박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노소를 막논하고 최우선적인 행복의 요소는 건강한 육체를 보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기자는 느꼈다.

* * *

오후 7시 안석록검사소장과 검사반은 정말로 바쁜 검사일정을 정리했다.

하루종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바쁜일정속에서 시종 미소를 잃지않는 친절한 상담, 변화없는 검사자세등을 기자가 보았을때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검진 현장을 떠나서 지부에 도착시간은 저녁 11시 30분, 어둠이 짙게 깔린 춘천에 도착한 것이다. 기자가 놀란 것은 바로 지부에 도착 한 순간이었다.

전직원들이 퇴근을 하지않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9호의 김연대기사는 『우리지부 직원들은 한달에 20일정도는 현지 출장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출발하여 저녁늦게 지부에 도착하지요. 그럴때는 항상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출장나간 직원들을 반겨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요. 어딘지 모르는 가족적인 따뜻함이 우리지부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말하자면 자신의 일이 끝나도 동료직원들의 어려운 고생이 곧 자신들의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강원지부 직원들. 또다시 내일의 출장검진을 위해서 검사기자재를 늦은 시각에도 정비하고 있었다.

강원지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안까지 강원도 구석구석의 각급학교를 순회 검진할 계획이다.

* * *

기자는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속에서 이런 말을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말한 “불가능은 없다.”를...

이말은 보다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일하는 강원지부 직원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닌가를 생각해봤다. 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노소를 막논하고 최우적인 행복의 요소는 건강한 육체를 보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기자도 느꼈다.

〈글 : 오일민 기자〉